

한국복음주의학 발전문 이상규 교수 // (고신대학교)

주기철 목사와 민족주의

1. 시작하면서: 기독교신앙과 민족주의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民族)이라는 말만큼 가슴 뭉클하게 하는 말은 흔치 않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던 민족을 말하고, 민족을 앞세우면 긍정적 인 평가를 받지만, 반대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말하면 반 이단적 변절자로 공격 받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동안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 제하의 우국지사나 독립운동가들은 한결같이 민족 정신을 강조했다. 정인보에게 있어서 그것은 '일 이었고, 박은식에게 있어서는 '국론'(國論)이었다. 그들은 민족 교육을 강조했다, 민족분화를 중시했다. 이런 역사적 상황 때문에 학리사상에서도 '민 족' 혹은 '민족주의'적 접근은 신뢰를 받았고, 민족 을 말해야 할 서구적인 선도적 지식인인 양 이해되 기도 했다. 최근까지 민족의 문제는 진보적 지식인 의 표상처럼 되었다.

심지어 민족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 한 국교회와 신학계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했다. '민 족교회론'이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민족신 학'을 말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싸웠던 이들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적 평가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 일제가 손양원, 주기철, 주남선, 한상동 목사 등의 신사참배 거부 행위를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평가 하는 것이다. 이들의 신사참배 거부 행위를 '민족 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 는가 하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요소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신사참배 거부행위를 거시적 안목으로 평가하여 한국교회의 민족적 기여를 주 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들이 신앙적 동기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 와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반일 민족운동에 기여하 였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고, 민경배 교수는 이것을

내연과 외연의 관계, 곧 신앙의 현상학이라고 불렀 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사참배 거부자 들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립하는 일 이다. 역사가에 있어서 해석에 앞서 사실(fact) 규명 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신 사참배 거부자들이 민족적 과제를 위해 투옥되고 순교의 길을 갔는가? 민족적 동기가 신사참배 거부 의 진정한 그리고 근본적인 동기였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민족주의는 대체적으로 배타적 성격을 지 니고 있고, 타 민족에 대한 공격적 성격을 지닌다. 말하자면 민족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정의(justitia omnibus)일 수 없고, 따라서 보편적 가치일 수 없 다. 18세기 이후 민족주의적 팽창은 양차대전의 원 인이었고, 20세기의 민족주의는 이탈리아, 독일, 일 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주의적 파시즘체 제로 굳어졌다. 분명한 사실은 민족주의는 보편적 가치일 수 없고, 민족을 이데올로기화 할 때는 폭력 성을 동반한다. 그 일제가 독일의 나치스나 일본의 군국주의인데, 이들은 민족을 이념화함으로써 타 민족에 대해 폭력을 정당화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복음은 민족이나 민족주의 의 한계 안에 안주할 수 없고, 탈 민족적, 탈 인종적 이며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사도행전이 예시하는 바처럼 나사렛 총파는 처음부터 유대주의 적 한계를 넘어 이방세계로 확장되었고, 하나님은 유대주의적 한계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주셨다. 요나의 니느웨 파송이 그러했 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방문을 앞둔 베드로 의 경우가 그러했다. 복음의 보편적 성격은 성경 여 러 곳에서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 민족 주의는 경계해야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 서는 주기철 목사는 그의 목회와 설교에서 민족, 혹은 민족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간략하게 검토 하고자 한다.

2. 주기철 목사의 목회사역과 민족주의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원군(昌原郡) 웅천면 (熊川面) 북부리(北鄙里)에서 주현성(朱玄聲) 장로 와 조재선(曹在善) 여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주기 철(朱基徹, 1897-1944) 목사는 1906년 개동(開洞) 학교에 입학하여 7년 간 수학하고 1912년 졸업하였 다. 이광수(李光洙)와의 만남을 통해 민족 현실을 인식한 그는 1913년 종형 주기영과 함께 장주 오산 (伍山)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 3월 졸업과 동시에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하였다. 약 1년을 수학하 고 중퇴한 그는 실의의 날을 보내던 중 1917년 말 경 김해출신의 안갑수(安甲守, 1900-1933)와 혼인 하게 된다. 1920년 5월 27일에는 미신문장교회에서 열린 김두우 목사의 부흥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경 남노회의 추천을 받아 1922년 3월에는 평양의 장로 교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3년 6개월간 수학한 그 는 1925년 9월, 제19회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12월 30일 경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 그 후 주기철은 3지역의 교회, 곧 부산 초량교회(1926-1931), 마산 문장교회(1931-1936), 평양 신정현교회 (1936-1944)에서 목회하게 된다. 산정현교회 시무 중인 1938년 2월 김숙이후 약 5년간 옥중에서 투쟁 하던 그는 1944년 4월 21일 밤 순교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목회 여정에서 소양 주기철은 민족 에 대한 관심은 경시하지 않았으나, 민족주의에 대해 서는 경계한 것으로 드러난다. 소양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1926년 1월 초량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 게 되는데, 이때부터 1931년까지 6년간 시무했다. 초 량교회는 소양의 전인 정덕생(鄭德生, 1915-1926) 목 사의 영향으로 교회에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짙었고 교회 안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영적 분위기를 압도하 고 있었다.1) 박유규, "소양 주기철 목사의 생애," 『소양 주기철목사 기념논문1-5회 합본』(주기철 목 사 기념사업회, 2000), 33. (다음호에 계속)

'교회법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주제 세미나

한국교회법연구원 창립10주년기념

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 영환 장로)은 지난달 23일(월)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에서 '교회법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주제로 창립10주년기념 제11회 교회법세미나를 열고 인간 존엄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교회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효종 장로(한국장로교교육원 원장) 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이사장 정인수 장 로(영주영광교회 이사장)의 기도, 이사장 김순권 목 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1:26-2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존귀하고, 평등한 권리를 아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어 떤 이유에서도 사람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환 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상에 여러 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기독교 세계관 확립에 있어 연구원의 역할을 더욱 고민하 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주제로한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인간 존엄성 사상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 인 성경에서만 찾아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성 안 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종교성, 지성, 감성, 인 격, 윤리와 도덕, 고저원의 언어소통성 등을 가리키 며 이런 성질은 인간 외 다른 어떤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성질"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교회법연구원의 정례 과제에 대 해 △연구 영역의 확대 및 활성화와 △교회법 세미나 의 효율화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의 수강자 확대 △현안 문제 연구발표회의 활성화와 △교회 등 의 분쟁에 대한 조정자분위원의 운영 △교회 내 갈등 등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비전 제시 △교회법과 정 당한 국가법 준수를 위한 운동 전개 △연구원 홈페이지의 활성화와 △연구원사업의 활성화(R&D)를 위 한 연구제 등 제정확보 등을 꼽았다.

성령론

정형기 목사 // 교단 교회성장국장, 영광순복음교회

말씀으로 보는 성령 5



- 8)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심
-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시느니라"(롬 8:26)
- 9)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힘과 능력주심
-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롬 8:16)
- 10) 성도를 위로하며 도와주심
- 8. 성령 받아야 할 이유(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성령 을 받아야 하는가?)**
- 1)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군사는 대장 명령에 복 종해야 합니다.)
- "을 취하지 말라 이는 병통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 만을 받으라"(엡 5:18)
- 2) 천국가기 때문에
-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 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 3)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라"(엡 3:16)
- 4) 말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 "민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 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 라"(사 40:6)
- 5) 전도의 능력 받기 위하여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 6)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며"(겔 36:26)
- 7)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참음 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법을 금 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
- 8)신령한 일을 분별하기 위하여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 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 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3-14)
- 9. 성령을 받으려면**
- 1) 회개해야 한다.
-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행 2:38)
- 2) 기도해야 한다.
-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하듯하며 너희 천 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 3) 사모해야 한다.
-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이다"(시 107:9)
- 4) 말씀을 들을 때

-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에게 내리오시니"(행 10:44)
- 5) 안수받을 때
-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 므로 방언도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 사람쯤 되니라"(행 19:6)
- 6) 순종해야 한다.
- "우리는 이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하느니라"(행 5:32)
- 10.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은사(엡 4:11, 롬 12:6-8)**
- 1) 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은사
- 2) 발상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 3) 권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 11. 성령의 직인적 은사**
- 1) 에베소서 중심 : 사도, 복음전도자, 선지자, 목사, 교사
- 2) 로마서 중심 :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 12. 성령충만한 자의 97가지 열매**
- 1) 사랑의 열매(갈 5:14, 마 22:37-40)
- 2) 희락의 열매(시 100, 살전 5:16)
- 3) 화평의 열매(마 5:9, 히 12:14)
- 4) 인내의 열매(약 1:12)
- 5) 자비의 열매(마 12:7)
- 6) 양선의 열매(딤후 1:5:19)
- 7) 충성의 열매(예 2:10)
- 8) 온유의 열매(마 5:5)
- 9) 절제의 열매(딤후 1:8)
- 13. 성령충만한 상태의 점검**
- 1) 평안, 2) 기쁨, 3) 감사, 4) 기도하고 싶은 마음, 5) 주 님 사랑, 6) 이웃사랑, 7) 헌신적 열심
- 14. 성령소멸의 뜻**
- 1) 죽이다.
- "너희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렘 2:1)
- 2) 탄진하다.
-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 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7)
- 3) 타버리다.
-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히 10:29)
- 4) 삼켜버리다
-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 한즉 저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같이 죽임을 당하리라"(예 11:5)
- 15. 성령을 모독하는 6가지 죄**
- 1) 훼방(마 12:32)
- 2) 거부(사 63:10)
- 3) 모독(막 3:9)
- 4) 조롱(행 2:13)
- 5) 위증(행 5:1)
- 6) 근심(엡 4:30)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임원 및 조직



고문 박희숙 성원교회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중경회장 김경희 제주순복음교회



중경회장 김양란 포항인디애나교회



직진회장 차정애 진주감전순복음교회



회장 김영숙 순복음거제중앙교회



1부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2부회장 윤금자 목암제일교회



3부회장 김영애 영동제일교회



총무 이은숙 순복음임마누엘교회



부총무 전희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협동총무 조정애 순복음음악교회



서기 이강례 구로열린교회



부서기 강춘옥 김천순복음교회



회계 차추련 안동성리교회



부회계 오숙희 밝은빛교회



감사 김정희 제주순복음교회



감사 박경미 순복음성리교회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김영숙 · 총무 이은숙 (010-2907-5235) 사모회 회비 입금계좌 352-0770-0690-13(농협 김영숙)